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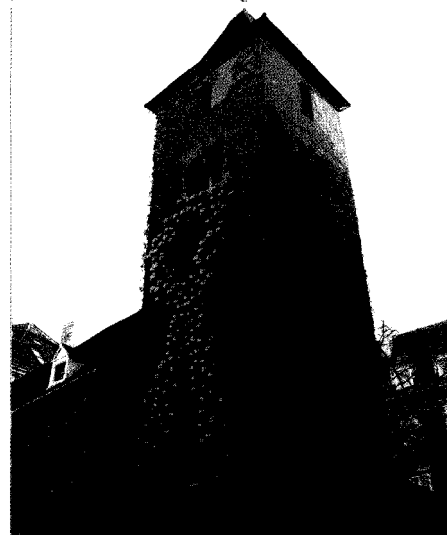
세계 에이즈의 날 캠페인 주제

Women, Girls, HIV & AIDS

:: 신수린 본회 사업부장

1988년에 처음으로 세계 에이즈의 날이 지정된 후에 12월 1일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적으로 에이즈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되었다. 이러한 성공에 아이디어를 얻어 1997년부터는 단발성 캠페인에서 벗어나 연중 에이즈 캠페인을 벌이자는 취지 아래 연중 캠페인 주제가 제정되어 전 세계적으로 펼치게 되었다. 특히, 유엔에이즈는 유엔소속 국제기구와 비정부단체 및 각국 정부와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동시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에이즈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오스트리아 빈의 가장 오래된 교회 Ruprechtskirche에서
2002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하여 풍선으로
에이즈 상징물인 레드리본을 형상화





여성들은 특히 HIV에 취약하고 AIDS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된다. 전 세계적으로 젊은이들의 HIV 신규 감염률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신규 감염인의 67%는 15세에서 24세 사이의

젊은이들이다. 또한 제3세계에서 에이즈 감염인의 64%가 젊은 여성(15세~24세) 들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 연구에서 여성이 HIV 감염인일 비율은 남성에 비해 약 2.5배가량 더 높을 것으로 비교 연구되었다. 서남 아프리카의 국가에서는 젊은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약 2배가량 감염인일 확률이 높았고, 어느 특정 지역에서는 약 6배가 더 높은 것으로까지 예상되며, 동부와 남부 아프리카에서는 젊은 여성들의 약 삼분의 일이 감염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약 3,000만 명이 이미 에이즈로 인해 목숨을 잃었고, 지금도 제3세계에서는 약 6백만 명의 에이즈 감염인들이 항레트로바이러스 약제사용이 당장 필요한 실정이다. 이중 여성과 어린이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여성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를 한 번 할 시에 에이즈에 감염될 가능성은 남성에 비하여 약 2배가 높다. 그러나 안전한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성 파트너인 남성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은 집안일을 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가족 구성원이 아플 때는 여성이 우선적으로 간호를 맡아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HIV/AIDS는 여성에게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가난과 정

부가 운영하는 병원 시설이 부족한 실정에서 가족구성원의 간호는 더더욱 여성의 차이가 되고 있다. 이는 사회적으로, 공중보건학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에이즈 유행이 심각한 지역에서는 소녀들이 학교에 다니는 비율이 지난 10년 동안 상당히 저하되었다. 가족 구성원이 아프게 되면, 그 집안의 딸이 우선적으로 학교를 그만두고 그 가족 구성원이나 친척들을 돌보는 간병인이 된다. HIV/AIDS는 최근 들어 어렵사리 소녀들이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 세계적인 변화를 역행하도록 만드는 주범이 되고 있다. 학교에 다니는 것은 보호 장치 중의 하나이



» 유행의 에이즈 캠페인 <<

아직은 각국의 세계 에이즈의 날 행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웹 사이트에 나와 있는 것은 없다. 다만, 유엔 에이즈에서는 다음 9 가지 주제로 캠페인을 벌일 것을 권고하고 있다.

- HIV/AIDS에 맞선 여성의 복원력(Resilience)
- 가족과 지역사회에서의 통합을 위한 여성의 역할
- HIV/AIDS에 대항하는 여성 지도자들의 역할
- 성(Gender) 평등을 위한 남성들의 역할
- 여성에게 불평등한 부동산 소유권과 유산상속의 부당성으로 인한 여성에의 영향
- HIV에 매우 취약한 소녀들에 대한 교육의 역할
- 여성이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예방법에 대한 선택폭이 넓어져야 하는 필요성 (예 : 여성용 콘돔이나 살정제 등)
- 여성에 대한 폭력의 증가는 HIV의 확산속도를 증가
- 제3세계에서 남성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되는 항레트로바이러스제에 대한 접근성은 여성들에게도 동등하게 제공되어야 하는 필요성

» 캠페인 전략 <<

목적 : 여성의 에이즈 감염을 줄이기 위한 세계적인 대응책을 강화시키고, 여성의 치료 접근성을 동등하게 증가시키고 에이즈의 영향을 완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복원력(Resilience)과 리더십 : 에이즈 유행에 대항하는 여성의 역할 증진
- 지지 : 여성 감염인들이 에이즈를 안고 사는 이야기를 하도록 격려
- 인식 : 에이즈가 여성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국제적, 지역별, 나라별로 인식
- 변화 : 여성의 HIV 취약성을 강화시키는 젠더 차이에 대하여 문제점 제시
- 국내의 문제에 초점 : 여성에 대한 에이즈 영향의 완화에 초점을 둔 정부의 정책을 강화
- 자신감 : 특히 에이즈의 감염에 취약한 여성들의 자존감 증진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5분의 1이 첫 번째 성경험이 강요된 성관계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여성들이 에이즈에 취약한 여러 가지 이유는 이들이 에이즈에 대한 지식 부족, 에이즈 예방 기법의 접근 불충분성, 안전한 성관계를 위한 협상능력 결여, 여성이 에이즈 예방을 할 수 있는 장치의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이들은 대부분 남성 성관계에 비해 약 2배 정도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

다. 즉, 학교에서 정규교육을 통해 에이즈의 확산경로와 보호 방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정대로 가면 이러한 효과는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세계 에이즈의 날 캠페인은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도록 돕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이야기 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을 받고 있는 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를 알리고자 함이다.

전 세계적인 경향으로 볼 때, 여성들이 특히 에이즈에 취약한 이유는 그들이 에이즈에 전염되는 경로가 그들의 배우자나 남자친구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결혼은 더 이상 에이즈로부터 지켜주는 보호막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들은 20세가 되면 결혼을 하는데 그들은 성적으로 활발한 동갑의 미혼 대조군에 비하여 에이즈에 감염되는 비율이 높다.

특히 에이즈 예방의 슬로건으로 대표되는 "ABC(Abstinence, be Faithful and Condom use)는, 사실 이러한 여성들에게 튼튼한 안전망이 되지 못하고 있다. 성폭력이 만연되는 곳에서 금욕과 콘돔 사용요구는 사실상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사회적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많은 여성들은 "ABC"에 기초한 협상은 불가능하다.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5분의 1이 첫 번째 성경험이 강요된 성관계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여성들이 에이즈에 취약한 여러 가지 이유는 이들이 에



이즈에 대한 지식부족, 에이즈 예방 기관의 접근 불충분성, 안전한 성관계를 위한 협상능력 결여, 여성이 에이즈 예방을 할 수 있는 장치의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여성은 해부학적으로 남성에 비해 약 2배 정도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세계에이즈의 날 슬로건은 엄밀히 말하면, “여성, 소녀, 에이즈”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여성과 에이즈”라고 통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첫 여성 감염인은 1986년에 보고되었고, 그 이후로 꾸준히 여성 감염 발생률이 보고되고 있으며, 2004년도 9월 말 현재 304명으로 보고되고 있

» 연도별 여성 감염인 발생현황

(자료출처 : 질병관리본부)

연도	'86	'87	'88	'89	'90	'91	'92	'93	'94
명	3	5	5	2	4	4	4	7	11

연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명	19	12	17	18	26	25	35	35	32	40

* 2004년 9월까지의 현황

» Key messages «



1. 일반 대중의 고위험 행동으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에이즈에 취약하다.
2. 여성은 가족과 지역사회를 정성적으로 유지하는데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에이즈에 대항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3. 여성 지도자들은 좀더 에이즈에 대하여 이야기해야 한다.
4. 지역사회에 있는 남성들도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고, 또한 여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이득을 볼 수 있다.
5. 여러 단체의 여성들은 HIV와 관련된 오해와 편견으로부터 싸울 수 있다.
6. HIV 감염 여성들은 사회 내에서 그리고 에이즈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에 독특한 역할이 있다.
7. 여성친화 건강 시스템 구축은 여성과 어린이의 치료기관에의 접근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8.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가족의 결집력을 유지시켜 준다.
9. 소녀를 교육하는 것이 그들의 에이즈에 대한 취약성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10. 여러 가지 예방옵션이 여성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게 한다.
11.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HIV 확산에 기여하며 이러한 폭력에 대하여는 강력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12. 항 레트로 바이러스 약제를 제공 받는 수의 절반은 반드시 여성이어야 한다.

다. 이는 남성 대 여성의 비율이 약 9대 1로 아직은 남성 감염인이 많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여성 감염 패턴은 현재 세계적으로 여성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는 패턴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상기의 표에 나열된 숫자를 보면 “우리나라는 별 문제 없군”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

이 상황에서 “여성과 에이즈”라는 슬로건으로 적극적으로 에이즈 예방사업을 펼치는 것이 적절하냐고 누가 묻는다면, 이에 대한 대답은 없다.

단지, 말할 수 있는 것은, “여성과 에이즈”가 왜 분계시 되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현재 왜 에이즈가 여성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만일 우리나라에서 에이즈가 이러한 패턴을 가지고 확산된다면 그 사회병리학적 현상을 이해하는 데 이해를 도울 수 있다고 믿는다. 숫자가 어찌 되었든 간에, 나옴에 나열하는 성공적인 “여성과 에이즈” 캠페인을 거두기 위한 메시지는 사회전반에 걸친 구조적 결점을 지적하고 있는 듯하여 소개한다.

상기한 메시지는 사실 사회 전반에 걸친 성(Gender) 불평등에 대한 도전이고 변화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여성과 에이즈는 단지 에이즈라는 질병에 대한 인류의 공통된 싸움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 내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행동이 우리 인류를 에이즈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라 조심스럽게 결론을 지어본다.